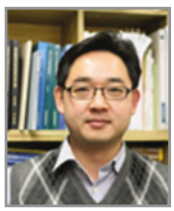
농촌의 내생적 특화발전 기반으로서 농촌 문화산업



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yeskskim@krei.re.kr

들어가며

2000년대 들어 농촌 활성화 전략이 내생적 발전전략으로 선회하였다. 지연산업, 농촌체험관광, 전통문화산업, 향토산업, 농촌지역축제, 향토지적재산사업 등과 관련된 각종 정부시책이 내생적 발전전략에 포함된다. 비록 이들 부문은 개별 시책에 의해 육성되어 왔지만 농촌에 부존하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적 공통점을 지닌다. 필자는 이들 부문을 '농촌 문화산업' 이라 칭하는데, 농촌 문화산업은 농촌에 특화된 내생적 발전전략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농촌 문화산업은 "농촌에 특화된 오래된 미래(농촌의 문화자원)를 통해 농촌경제의 활성화" 를 추구하는 전략적 특성을 지닌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략에 기반한 농촌의 생산체계 또는 경제활동 체계를 농촌 문화산업으로 개념화하는 한편 그 특성과 실태를 검토하고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촌 문화산업의 개념과 특성

기존에 추진된 농촌 활성화 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농촌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경제활동 유형에는 지연산업, 농촌체험관광, 전통문화산업, 향토산업, 농촌지역축제, 유적 · 유물기반의 농촌관광, 향토지적재산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살아 있는 유 · 무형의 문화로서 과거의 모든 것", 즉 문화유산을 상업화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농촌 문화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농촌의 문화유산을 상업화하는 생산체계 또는 경제활동체계"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문화산업에는 〈표 1〉과 같이 ① 전통 및 향토 식품 부문, ② 전통공예 부문, ③ 전통문화 예술축제 및 전통소재 공연 부문, ④ 문화유적 기반 농촌관광 부

문, ⑤ 농촌체험관광 부문 등이 포함된다. 정보통신기술, 디지털기술 등을 기반으로 도시 특히 대도시에서 발달하고 있는 기존의 문화산업과는 달리, 농촌 문화산업은 전통성(역사성)과 지역성(향토성 고유성)을 기반으로 이에 심미적 · 상징적 · 오락적 가치를 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을 지닌다.

〈표 1〉 농촌 문화산업의 하위 부문과 개념

구 분	개 념
전통 및 향토 식품 부문	- 해당 지방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그 지방의 조리법으로 조리하는 음식으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지방에서 전해 오는 음식의 상업화 - 예로부터 조상들이 즐겨 먹던 음식으로 특정 지역만의 전통은 아니지만 현재 해당 지역에 그 전통이 남아 있는 음식의 상업화
전통공예 부문	- 금속, 도자, 목칠, 유리, 섬유 등의 소재와 장인기술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물건이나 예술적인 조형물을 만드는 것(섬유공예, 목공예, 나전칠기공예, 도자공예, 석공예, 보석공예, 금속공예, 초자공예, 죽세공예, 초경공예, 모피공예, 종이공예 등)
전통문화 · 예술축제 및 전통소재 공연 부문	- 예로부터 해당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행사(놀이, 굿, 제의, 축제 등)와 전통예술(소리, 춤사위) 등을 상업화하거나, 전통적 소재를 현대적 공연으로 상업화한 경우
문화유적 기반 농촌관광 부문	- 건축물, 기념비, 풍경, 기록물, 예술품, 기타 문화 · 역사적 인공물(물리적 문화재)을 보존하면서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제활동. 물리적 문화재란, · 역사 · 문화 유적이 있는 장소 · 역사 · 문화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 · 박물관
농촌체험관광 부문	- 농촌의 자연 · 생태적, 사회 ·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농촌 방문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체험하는 관광형태. 대안여행 형태의 체험관광과 정부지원에 의한 체험마을사업 형태의 체험관광, 그리고 정부지원 없이도 마을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 사업 포함
기타 부문	- 기타 농촌 문화산업의 지적재산권화, 문화콘텐츠산업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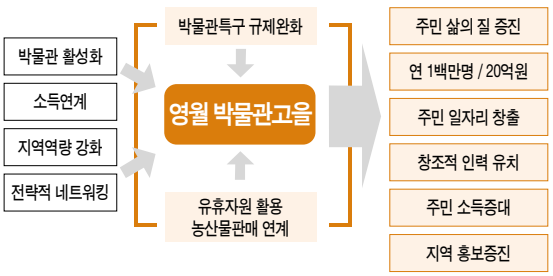
농촌 문화산업은 전통성과 지역성이 문화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적 자본의 기반으로 작용하면서 자원의 내생적 동원과 산업발전의 지역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2009년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연간 매출규모가 60조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농촌 문화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보잘것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지역적 차원에서는 경제기반이 부족한 농촌 지역경제의 내생적 특화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농촌 문화산업의 현황과 사례

농촌 문화산업이 지역적 차원에서 농촌 경제의 새로운 내생적 특화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전통한과 생산업체들이 사천면을 중심으로 강릉 한과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 지역화된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농업과 연계한 원료투입 및 지역주민 고용과 같은 후방연계, 한과축제 및 한과체험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전방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1〉 강릉 전통 한과산업의 생산체계

세계적인 텅스텐 생산지였던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에는 폐광으로 지역경제가 피폐화되자 1999년부터 '문화로 세상을 바꾸자' 는 목표를 내걸고 박물관고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영월군 박물관고을 사업의 주요 특성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벨트화하여



〈그림 2〉 영월 박물관산업의 지역파급 구조

지역의 문화 수준과 발전 수준을 한층 높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이다. 현재 24개의 인문 · 자연과 관련된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방문객이 100만명, 입장료 수입이 2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도 〈그림 2〉와 같은 다양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는 또 다른 유형의 농촌 문화산업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고택체험 프로그램은 안동시 관내에 분포하는 고택 가운데 450채 가량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한 해 동안 고택체험을 다녀간 숙박객이 7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숙박객 1인당 지출은 1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안동의 실경뮤지컬은 안동의 역사 · 문화 콘텐츠를 각색하고 안동의 성곽이나 고택, 하회마을 부용대 등의 실경(實景)을 무대로 뮤지컬을 공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09년부터 '락—나라를 아느냐' (순국한 안동의 독립운동가 김락 열사의 이야기), '사모—450년 사랑' (퇴계 이황과 기생의 사랑 이야기), '왕의 나라' (공민왕과 노국공주 이야기), '부용지애' (유성룡과 유운룡의 형제애, 허도령과 김씨 처녀의 전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농촌 문화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39개 농촌 시 · 군을 대상으로 2011년 9월 한 달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촌 문화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조 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문화콘텐츠산업과 같은 도시 중심의 기존 문화산업 시장규모와 비교하면 보잘것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 · 군 평균 매출규모가 121.4억원에 달한다는 점은 소규모 농촌 시 · 군의 연간 총예산이 3~40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앞서 제시한 몇몇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 문화산업은 지역과 연계된 산업체계의 지역적 착근(embeddedness)에 의해 내생적 발전전략의 핵심인 지역경제의 순환체계 구축과 특성화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촌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과제

농촌 문화산업은 국가경제의 측면이나 부문적 접근에서보다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특화발전의 전략이나 내생적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지역적 관점에서 접근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산업육성이 그러하듯이 농촌 문화산업 역시 그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촌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중앙정부 차원과 지자체 차원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첫째, (가칭) 「농촌 문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동 법에 근거해 (가칭) '농촌 문화산업 진흥계획' 을 수립하여 농촌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농촌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인 (가칭) '농촌 문화산업 발전 협의회' 를 구성 · 운영해야 한다. 셋째, 실태조사 결과 농촌 문화산업 종사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정보의 부족'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농촌 문화산업 정보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이들 기업과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관련 정보를 수집 · 제공하는 기능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민들이 농촌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농촌 문화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나 평생교육을 통해 농촌 문화산업을 알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의 육성 방안으로는 첫째, 각 지역의 문화자원 분포를 조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 문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동종 기업들의 집단화를 통해 개별 기업이나 사업조직이 달성하기 힘든 생산, 유통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농촌 문화산업 하위부문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및 후계자 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자체 차원에서도 농촌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